

니느웨환상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귀국해 남편과 함께 주님의십자가 교회를 섬기며,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님은

눈두덩이 부은 얼굴로 돌아 앉아 있는가
허물어진어깨에붉은상흔이남겨진허리를끼어앉고
고통의 신음에 잠겨

님은

창백한 얼굴

대륙을 이어 엮은 머리 힘에 겨웁고
남해에 담긴 발은 차게 시리워
지쳐 빼어 문 엉덩이로 하염없이 주저 앉으려...

손 잡아 줄 누군가는 없다
그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옛 시인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

누군가 달려오고 있는가
니느웨 통곡의 거리에!

‘백마 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굶은 베투 회한의 눈물 젖고, 부르짖음 하늘에 닿아
뉘우침, 자비와 만나면
그때에 그대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이라도
함께 준비하지 않으려나!

(‘백마타고 오는 超人’-이육사의 ‘광야’,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이육사 ‘청포도’ 에서 인용)

세계 지도를 펴 놓고 우리나라를 가만히 들여다 보니 참 작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 작은 나라가 반 토막으로 나뉘었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새삼 사무치기도 하구요. 서른다섯 해가 넘는 세월, 타국의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조국은 늘 제게 남겨 놓고 온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박힌 웅이처럼 쓰리고도 아렸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머리에 이어 엮고 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매달려 있는 그 애잔한 모습. 예순다섯 해라는 긴 세월 허리가 반으로 나뉘어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시리고 멍멍했습니다. 조국은 그렇게 떨어진 거리와 지나간 세월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제 마음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국을 떠나 살아 어려운 시절 함께하지 못한 제 자신이지만, 무릎 꿇고 머리 숙일 때마다 조국과 나는 끊을 수 없는 핏줄 같은 정분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새록 새록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런 나의 가슴 아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픔 속에 내재해 있는 정이란 것이 사랑보다는 연민(憐憫)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연민(憐憫)과 사랑. 여기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연민은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희생도 없습니다. 누구나 연민은 할 수 있지요. 가슴 아파 실컷 눈물이라도 흘리고 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입니다. 연민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고 말지만 사랑은 타인을 위한 확실한 행위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이 조국을

연민하는데 그치고 마는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愛國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늘 책임의 자리를 회피해 왔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탓해왔습니다. 푯대를 잃은 경주자들처럼, 뿌리 없는 사람들처럼 우왕좌왕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외세의 침략으로 보따리를 싸야 했던 백성들 그들이 또 한번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고 보니 전쟁의 불안은 DNA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었나 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낸 역사가 그만큼 험난했고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엽편주(一葉片舟) 같이 작고도 연약한 이 나라가 요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감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긴장하게 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한류열풍이란 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드라마의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드라마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할 만큼 K 팝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케 하는 한류열풍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다이~, 샘성~, 엘지~가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나? 평화나? 일희일비(一喜一悲) 하게 만드는 핵 문제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처럼 작고 존재감 없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 것만은 확실한 듯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작은 나라는 많이 있지만 저는 작은 나라 하면 유독 이스라엘이 한국과 오버랩되어 떠오르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그만큼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왜 하구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의구심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모든 민족의 수효보다 적은 연고!”라고요. 능력 있는 큰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없는 자, 지혜 없는 자, 작은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를 들어 쓰셔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작고 적은 연고로, 연약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조국에 부어주신 은혜는 진정 한량없고 무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순교의 뜨거운 피를 영적 거름으로 삼아 기독교의

아름다운 꽃을 한반도에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받은 이 백성이 목이 곧아지고 이마가 금강석같이 단단해져서 그 교만이 스스로를 좀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성공주의의 화려한 허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포기한 듯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솔직히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는 땅에 버려져 짓밟힘을 당하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병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왜인지 성서 속의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회개하라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선지자가 니느웨 땅을 달릴 때에 놀랍게도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재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만과 거짓의 수치를 드러내고 회개의 배옷을 입은 것입니다. 니느웨 온 거리



는 회개의 통곡 소리가 드높았고 그 회개는 전심으로 가슴을 찢는 영혼의 회심이었습니다. 택함 받고 많은 은혜를 누렸으나 선민의식으로 교만해진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실을 뉘우치고, 돌이키며, 니스웨 사람들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를 위로하는 연민이 아닌 이웃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앓기를 서로 꺼려 해 왔던 진정한 사랑의 자리, 책임이 있고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한국 기독교에 대한 소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 올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라가 새로워지고 바로 서려면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바로 서야 함을 생각합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너와 내가 탄 배는 한 배입니다. 누군가는 大(나라)를 위해 小(자기의 이익)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인격의 그릇이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넉넉하고 분별 있는 사랑과 배과 같은 지혜로 함께 안고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으로 만나져야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듯 나와 나라도 사랑으로 이어져야 창조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품고 가야 할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가까워온 듯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치룰만한 충분한 가치와 값진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인 부담감과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지겠지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여 더욱 진리를 지키기에 힘쓰고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에 선지자를 돌이켜 니스웨 거리를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이 회복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보(襟)에 싸인 물을 움직이듯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난 인간의 역사를 주장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니스웨 성의 선지자처럼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의 잠들어 있음을 깨우며, 우리의 가슴을 뒤흔드는 누군가가 저 광야로부터 달려오고 있다면...

'그 날'을 위해 오늘 우리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이라도 함께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